# 끝내줬다 '나지王'

## MVP 나지완

나지완이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린 순간! 고요하던 잠실구장에 터질듯한 환호성이 가득했다.

한국시리즈 최종전이 열린 24일, 5-5로 맞선 9회말 원아웃, 앞선 6회 한국시리즈 부진을 만회하는 투런 홈런을 쏘아올렸던 나지완이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는 노련한 채병용. 초구 스트라이크를 그냥 보냈던 나지완은 침착하게 수싸움을 벌여 투 스트라이크 투 볼을 만들었다. 그리고 채병용의 6번째 직구를 받아 좌측담장을 넘기며 'V10'에 마침표를 찍었다. 맞는 순간 홈런이었던 큼직한 타구였다.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2·4·5·6차전에서 이렇다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나지완은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쏟아내면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씻어냈다.

나지완은 타고난 힘과 근성으로 조범현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지난해 팀 사상 처음 신인으로 개막전 4번 타자를 맡았었다. 하지만 높은 프로의 벽에 막혔던 나지완은 2군을 오간 끝에 후반기 뒤늦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다.

나지완은 지난 겨울 포항에서 최희섭과 자체 캠프를 차리는 열성까지 보이며 오로지 야구를 위해 힘을 쏟았다. 하지만 올 시즌 역시 출발이 좋지 못했다.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자신감이 오히려 독이 됐다. 끊이지 않은 부상도 나지완을 괴롭혔다. 그러나 조범현 감독의 인내속에 1군을 지켰던 나지완은 프로 데뷔 2년만에 두 자릿수 홈런(23개)을 기록하며 신흥 거포 탄생을 알렸다.

서울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나지완의 고향은 광주다. 작은 아버지와 할머니가 광주에 살고 계시고, 지완이라는 이름도 무등산 지왕봉을 따 지은 것이다.

극적인 반전, 극적인 승부의 주역 나지완이 12년만에 고향에 우승의 기쁨을 선물하며 KIA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나지완은

팀에 10번째 우승컵을 안겨주며 한국시리즈 MVP로 우뚝 선 나지완은 2008년 KIA 유니폼을 입은 프로 2년차의 젊은 선수다.

1985년 5월19일 광주에서 태어난 나지완은 서울 수유초등학교 재학시절 야구를 시작해 신일중-신일고-단국대를 거쳐 야구에 대한 열정을 이어왔다.

단국대 재학시절인 2007년 대만 야구월드컵에 출전했던 나지완은 지난해 3월29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4번타자를 맡는 등 182㎝, 100㎏의 건장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야구인생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프로구단 지명을 받지 못해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나지완은 특유의 근성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대학무대를 평정했다. '우타거포 부재'로 고민하던 KIA는 2008년 나지완을 선택했다. 2차 1순위로 KIA 유니폼을 입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나지완의 첫 해는 아쉬움과 기대의 해였다. 타율 0.295, 6홈런 30 타점이 나지완의 프로 첫 성적이다.

최희섭과 황병일 타격코치는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을 만든 인물이다. 나지완은 두 사람을 친형과 친아버지와 같은 두 사람과 절치부심 2009년을 준비했다. 지난해 12월 황 코치의 고향인 포항으로 자체 캠프를 차렸다. 미야자키 전지훈련에서도 휴식날도 반납한 채 땀방울을 흘렸다. 그 땀방울은 2009년 10월 KIA의 또 다른 가을전설을 탄생시켰다.